

예체능분야 지역인재 육성

의산사랑 장학재단, 우수인재 조기 발굴 '의산의 빛' 지원사업 추진

(재)의산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이 의산의 예체능분야 꿈나무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의산시는 장학재단 신규사업으로 예체능분야 재번화대 및 우수인재 조기 발굴을 위한 '의산의 빛'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체능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의산의 초·중·고등학교 총 사업공모를 통해 3개 학교를 선정하여 우수 강사[부]·기자재 구입비 등 특성화 프

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체능분야 '의산의 빛'지원사업은 벌써부터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의산의 재능 꿈나무들이 의산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현율 이사장은 "일반 학업 우수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예체능 특기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산사랑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올해 신규사업인 예체능분야 '의산의 빛' 지원사업, 학력신장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명문대 교육문화 체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산=장양원기자



전통시장·대형마트 상생 위한 첫 걸음

군산 명산시장-롯데마트 군산점 자매결연 협약 체결

군산 명산시장과 롯데마트 군산점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자매 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롯데마트 군산점이 명산시장 상인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첫 번째 협약사업으로 명산시장 골목행사

장 아시장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롯데마트 군산점에서 명산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 서비스·위생·안전점검 및 교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저소득 층 어린이 지원, ▲휴무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홍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복면만 명산시장 상인회장은 "롯데

마트 군산점이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특히 명산시장 아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주시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용복 지역경제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경쟁이 아닌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의산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의산시는 2018년에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산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민원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장 △악취방

지시설이 없는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

지이며, 의산시청 녹색환경과(☎859-

5434)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의산시는 2016년부터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여

악취배출농도 저감 및 사업장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악취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의산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일제단속

의산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에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와 차고지의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동일한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위반차량 발견 시 단속예고문을 부착한 후 고 1시간 이후 재단속 시 과징금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위반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회물자동차 차고지 대상 900여개 업체 및 운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함께 신고한 차고지 또는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화물(여객)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만점

군산공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군산시가 지난 16일부터 군산공항 대합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공항을 오고가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탑승객 신분확인 절차의 강화로 신분증 미소지자 및 영유아 등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멀리 떨어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공항 인근지역의 거주민들과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총 75종으로, 일부 민

원서류의 경우 수수료가 관공서 창구보다 50%정도 저렴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성원 민원봉사과장은 "군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에 설치한 군산공항을 포함해 시청, 나운2동 주민센터, 늘푸른도서관 등 14개소에서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 전시장 이용 참가자 모집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30일까지 군산의 순수미술을 홍보하고, 지역작가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미갤러리 2층 '한민영 전시공간'을 이용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군산시민 및 군산 소재지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동양화·서양화 등 미술작품에 흥미하고, 총 3팀의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참가자는 이용모집 신청서, 전시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결과는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열린갤러리 2층

하반기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타 전시 홍보물제작 및 언론 홍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박물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하였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군산시민은 군산시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모집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박물관(☎454-7870)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